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사례연구

박기영*, 김선희**, 남희은**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pkynamu@nate.com

A Case Study of a Program to Establish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mpowering Parental Competencies of Adult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i-Young Park*, Sun-Hee Kim**, Hee-eun Nam**

*PH.D. in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이 장애특성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장애와 빈곤이 대물림이 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사례연구이다.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1:1 개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근거리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을 교육하여 코칭활동을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부모역량 강화와 자녀 및 가족관계가 개선되었고, 코칭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의 장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옹호인으로서의 역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사회속에서 충분히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녀가 발달지연이나 학습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자녀에게 장애와 빈곤이 대물림이 되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적 장애인 부부의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이 있을 경우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5]에서 보듯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인지적 장애인의 경우 연령별 자녀 양육, 음식조리, 위생, 가사, 의복착용, 성교육 등에 있어 장애부모의 눈높이 맞는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음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여성장애인 뿐 아니라 자녀의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근거리에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또한 지적장애인의 수준에 따라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다각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 서론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18,918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5%에 해당하며, 지적장애인은 212,936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지적장애인은 84,604명이다. 그 중 18세 이상 출산을 한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은 7,04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1]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임과 동시에 지적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이나 결혼, 각종 삶의 기회와 결정에서 다차원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2]

지역사회내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은 낮은 지적수준과 학습장애,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양육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고 [3],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 학교에서 받아오는 통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부분, 자녀의 건강지도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부부가 모두 지적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여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로 지적장애 아동이나 성인 지적장애인이 생활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사용 가능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가사, 이동 등 부족한 기능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여성이나 비장애 여성과는 달리 지적장애의 특성을 지원해주는 양육기술의 학습, 자녀 성장에 대한 이해 교육, 학령기 자녀의 학교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5]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 형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활동지원사나 자원봉사 인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훈련하며 자립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동안 실시한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역사회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00시 00구에 거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20대 이상의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8명과 개별 코칭활동을 할 수 있는 코칭요원으로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비장애인 여성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내용

2.2.1 장애가족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족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장애가족별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사와 코칭요원이 개입하였고, 사회복지사는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집단 프로그램과 코칭요원의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성인여성 지적장애인과 코칭요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코칭활동 및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문항 등 복지관에서 자체 제작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2.2.2 가족관계 척도의 변화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가족구성원들간의 변화된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친밀요인, 인정책임 요인, 수용 존중 요인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5: 항상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

2.2.3 장애태도요인 분석 척도의 변화

코칭요원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거부-7항목,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6항목, 접촉시 긴장-7항목 등 총 20항목을 사용하였다. 중립적인 응답을 피하기 위해 6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6: 절대 그렇지 않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장애인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7]

2.2.3 분석방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과정평가를 통해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가정 맞춤형 개별 지원 및 집단 프로그램의 계획대비 달성률을 분석하였다. 효과평가를 위해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1회의 파견활동만족도 조사와 코칭 요원을 대상으로 3회의 활동만족도를 분석하였고, 장애가정의 가족관계 척도와 코칭요원의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를 사전,사후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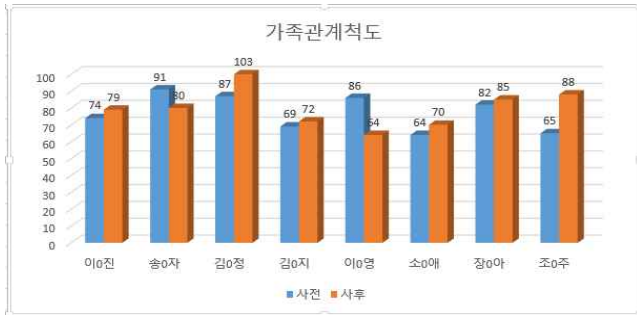
3. 프로그램 결과

장애가정 맞춤형 개별지원 및 집단프로그램의 과정평가 결과 연간 목표대비 91.8%를 달성하여 장애인 가정과 코칭요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칭활동은 75%가 매우 만족, 25%가 보통으로 나타났고, 집단 프로그램 실시는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본인의 부모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10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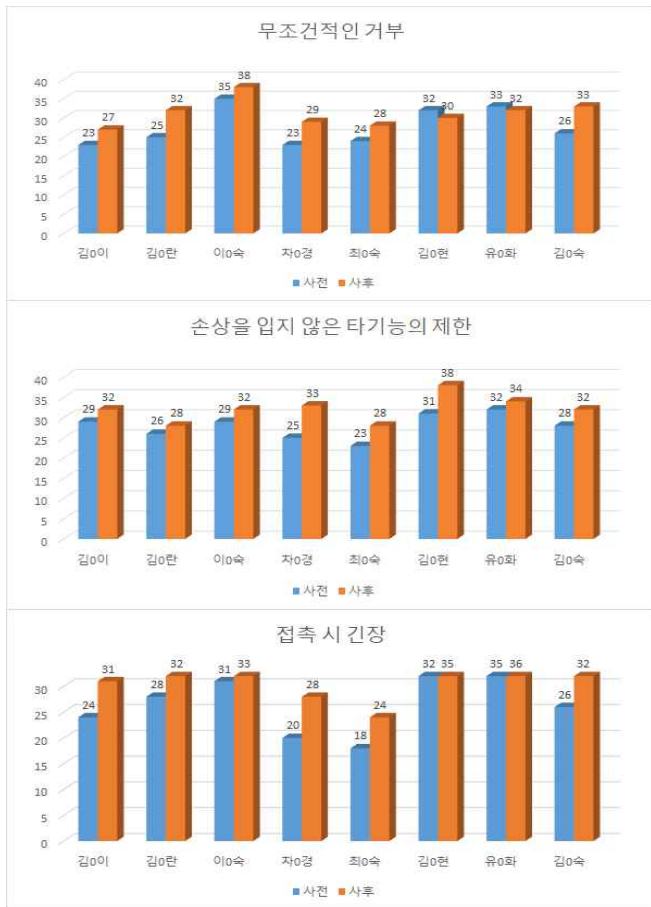
코칭요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만족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참가자와의 관계형성 정도는 47점에서 59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참가자의 변화유형은 심리/정서적 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환경의 변화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가자 개별목표 달성 정도는 51점에서 59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가족관계척도의 사전 사후 비교분석 결과, 8명 중 6명이 결과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가족관계

코칭요원의 장애태도요인의 사전,사후 분석의 결과, 무조건적인 거부 항목은 28점 상승, 손상을 입지 않은 다기능의 제한 항목은 34점 상승, 접촉 시 긴장 항목은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비장애인인 코칭요원의 장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태도요인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까?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가정의 문제 및 개별 욕구에 대응한 1:1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생활할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지적장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코칭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의 음식 조리가 어려운 가정에는 음식 조리에 대한 훈련을, 집안 정리가 안되는 가정에는 코칭요원과 함께 정리정돈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코칭요원과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자녀와의 관계도 향상되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부모역량 강화 뿐 아니라 자녀 및 가족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지적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적장애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 단기간의 변화가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 가정의 지원은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인력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공간인 근거리 지역내 주민이 조직화되어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을 교육하여 코칭요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지속성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코칭 활동을 통해 코칭요원들의 장애태도의 긍정적인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프로그램이 주민참여형 장애인식 개선활동의 효과성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생활을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코칭요원이 이전과는 달리 장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옹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할이 지원자에서 시민옹호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프로그램으로써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으나, 지적장애인가정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과 가족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사회속에서 충분히 생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천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2019, 등록장애인현황.
- [2] 황재경, 2021, “지적장애 여성의 지역사회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5(1), pp.5-40.
- [3]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오혜경, 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이송희, 2018, “지적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 일상생활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39, pp.127-156.
- [5] 김미옥·박미숙· 박현정, 2015, “지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47, pp.167-197.
- [6] 양옥경·이민영, 2003,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4, pp.5-33.
- [7] McHale, S. M., & Simeonsson, R. J., 1980, Effects of interaction on nonhandicapp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autistic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of Mental Deficiency*, vol. 85, pp.18-24.